

비르지니가 흑강 지구에서 온 노예의 용서를 구하러 갔었던  
오솔길을 돌아보았고, 그 다음 그녀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주저앉아 있던 삼유방산의 강변과, 그녀가 길을 잃고 헤맸  
던 숲 한쪽을 다시 가보았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걱정거리며, 장난치던 모습이며, 밥 먹던 모습, 친절하던  
모습 같은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모든 장소들, 그러니까  
긴산 아래 강에서부터, 내가 살던 작은 집, 근처의 폭포,  
비르지니가 심어둔 파파야 나무, 그녀가 뛰놀길 좋아하던  
잔디밭, 노래를 즐겨 부르던 숲의 갈림길까지, 그에게 비  
르지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곳들은 모두 잊달아 그의  
눈물을 흐르게 했네. 이제 그때와 같이 둘이서 함께 기쁨의  
환성을 지르면 냇 빈이고 돌아와 울려 퍼졌던 산울림도,  
그저 “비르지니! 아, 사랑하는 나의 비르지니!”라는 저 고  
통스러운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네.

이렇듯 야생을 떠도는 방랑 생활을 하면서 폴은 눈가가  
움푹 패고 안색도 누렇게 쓰더니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네. 기뻐하던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  
이 주는 감각은 더욱 커져가고, 그렇게 정념은 고독 속에서  
더 팽만해진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나는 가련한 이 친구를  
죽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트려,  
섬 안의 어디 다른 곳, 주변이 아주 소란스러운 곳으로 그를  
옮기기로 했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폴을 윌리엄스 지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원으로 데려갔다네. 그곳은 폴이 한